

2025. 6. 2

해외동향부 (제 7160)

- 주요 뉴스: 미국 재무장관 채무불이행 절대 불가 對中 무역협상은 교착 상태이나 해결 기대
 - 미국 5월 고용보고서, 신규 취업자의 소폭 감소 예상. 통화정책 영향은 제한적 전망
 - 연준 주요 인사, 연내 2회의 금리인하가 적절. 관세의 경제 영향 확인에 시간 소요
 - 중국 5월 제조업 PMI, 2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 50 하회.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 EU와의 무역협상 전망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EU와 긍정적 무역협상 기대, 양호한 Nvidia 실적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원만한 對美 무역협상 가능성 등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기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1.0%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저가매수 유입, 일부 연준 위원의 금리인하 지지 등이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7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1.2% 상승, 한국 CDS 하락

		5/30일	5/23일	전주말대비			5/30일	5/23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5,911.7	5,802.8	+1.88%	국채 금리 10y	미국	4.40%	4.51%	-11bp
	유럽	548.67	545.13	+0.65%		독일	2.50%	2.57%	-7bp
	중국	3,347.5	3,348.4	-0.03%		영국	4.65%	4.68%	-3bp
	일본	37,965	37,160	+2.17%	CDS 5y	한국	29bp	31bp	-2bp
	한국	2,697.7	2,592.1	+4.07%		중국	51bp	54bp	-3bp
환율	달러지수	99.33	99.11	+0.22%	위험 지표	EMBI+	385bp	383bp	+2bp
	유로화	1.1347	1.1362	-0.13%		VIX	18.57	22.29	-16.69%
	엔화	144.02	142.56	-1.01%		WTI유	60.79	61.53	-1.20%
	위안화	7.1989	7.1810	-0.25%	원자재	구리	467.8	480.7	-2.68%
	원화	1,383.1	1,366.5	-1.20%		금	3,289.3	3,357.5	-2.0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재무장관, 채무불이행 절대 불가. 對中 무역협상은 교착 상태이나 해결 기대

- 연방정부의 채무상한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베센트 장관은 채무불이행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구체적 X-date(정부가 보유한 현금의 고갈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부연. 시장에서는 채무상한이 확대되지 않으면 X-date가 8월에 도래할 것으로 추정
- JPMorgan의 다이먼 회장은 미국의 정부 부채가 채권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채권 자경단(재정 건전성 약화 시 국채 매도를 통해 경고 신호를 보내는 투자 집단)이 돌아왔다고 경고. Politico 등 일부 매체는 당국이 국채시장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완화에 합의했다고 보도
- 한편, 베센트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이며, 논의 규모 및 복잡성을 고려할 때 양국의 정상직접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언급. 양국 정상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관련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 이와 관련된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는 ‘곧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
- 백악관의 해시 국가경제위원장은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
- FT 등의 언론은 세법 개정안에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국가, 기업, 개인에게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복수세’가 존재한다고 보도. 이는 배당금, 이자 뿐 아니라 외국 기업이 자국에 송금하는 수익 등에도 부과 가능. 시장에서는 잠재적 부과 대상국으로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적용하는 EU가 거론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5월 고용보고서, 신규 취업자의 소폭 감소 예상. 통화정책 영향은 제한적 전망

- 6/6일 5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신규 취업자가 감소(17.7만명→13만명)하고, 실업률은 보합(4.2%→4.2%)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 그리고 이는 기업들이 관세정책의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
- 다만 연준 주요 인사들은 무역정책의 영향이 명확해지면 통화정책 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결과가 관련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

- **연준 주요 인사, 연내 2회의 금리인하가 적절. 관세의 경제 영향 확인에 시간 소요**
 -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금년 2회의 금리인하가 적절하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연율 2%)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까지 다소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부연. 달러스 연은의 로건 총재는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판단 및 이에 따른 금리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
- **EU,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에 보복 준비. 캐나다도 강력 반발. 호주는 협상을 우선**
 - 유럽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대해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 캐나다 상공회의소 역시 관련 발언은 캐나다 산업과 노동자를 향한 공격이라고 비판. 호주는 철강·알루미늄의 관세 인상이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서도 보복 조치는 없으며,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
- **중국 5월 제조업 PMI, 2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 50 하회.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
 - 국가통계국이 집계하는 5월 제조업 PMI는 49.5를 나타내 전월(49.0) 대비 올랐으나 확장의 기준인 50을 하회. 이번 결과는 무역전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등에 기인. 다만, 다른 일부에서는 경기부양책을 기대
- **일본 경제재생상,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 철회되지 않으면 타결은 기대난**
 -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과 4차 무역협상을 가진 후 관세 철회라는 기조는 여전하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OPEC+, 3개월 연속 증산 결정. 일부에서는 유가 하락을 전망**
 - 7월 일일 생산량의 41.1만배럴 증산(5, 6월과 동일한 규모)에 합의. 시장에서는 과잉 생산국 응징과 미국 트럼프의 저유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
- **Moody's, 브라질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하향. 재정불안 등을 감안**
 - 룰라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및 ECB 총재 발언, 미국 5월 ISM 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 신뢰, 중대한 시험대에 직면 - 블룸버그

(The bond market's faith in America is facing a test)

- 투자자들은 미국 장기물 국채에 대해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 이는 일본 등 주요국 금리 상승, 트럼프發 무역전쟁으로 인한 달러화 가치 하락 등이 국채 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 더 심각한 문제는 재정 상황으로,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재정적자와 차입비용 상승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 이에 강도 높은 재정 긴축만이 해당 악순환을 끊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을 둘러싼 상·하원 대치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하면 재무부는 8월 중 지급불능에 처하고, 인상 시에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 어느 경우든 시장 신뢰는 중대한 시험대에 직면할 전망

■ 미국 경제, 트럼프 관세 충격에도 경기침체 회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 - WSJ

(Why the U.S. Economy Will Muddle Through Trump's Tariffs. Probably.)

- 최근 경제지표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한 소프트 데이터는 악화되는 반면, 소비 등 실물 결과를 집계한 하드 데이터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 괴리가 존재. 특히 컨퍼런스보드의 선행지수는 경기침체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비관론자들은 관세인상 전 先구매 효과가 사라지면 실물 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
- 반면 낙관론자들은 소프트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소비 행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 5월 제조업 신규 수주가 작년 2월 이후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투자는 지속. 관세가 현재 수준에 머물 경우 성장세가 일부 둔화될 수는 있어도 경기침체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의 상관관계, 트럼프 정책 등으로 악화 - Financial Times

(Dollar's correlation with Treasury yields breaks down)

- 정부의 차입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해방의 날'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4.16%→4.42%)한 반면,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하락(-4.7%)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는 3년래 최저 수준
- 이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재정 우려, 미국 정부 신용 디폴트 스왑 스프레드 상승(그리스, 이탈리아 수준), 정책 불확실성 등이 채권 가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한편, 달러화 자산 헤지를 위한 달러화 매도는 두 자산 간 상관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 **신흥국 캐리 트레이드, 트럼프 관세 완화 기대 및 변동성 축소로 재개 - 블룸버그**

(Carry Trades Roar Back Into Favor as Emerging Currencies Rally)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당초 우려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통화 변동성이 완화. 이에 따라 고금리 여건의 신흥국 통화 매입을 위한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하고 있고, 관련 수익률 지수는 5월 말 기준 7년래 최고치. 이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시기일수록 캐리 트레이드 수익률이 높아지는 현상에 부합
- 투자자들은 멕시코 및 칠레 페소화, 한국 원화, 브라질 헤알화, 터키 리라화 등 신흥국 통화 매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달러화/유로화를 주요 조달 통화로 활용.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전망에 따라 위안화도 조달 통화로 거론. 일각에서는 미국의 고금리를 리스크 요인으로 경계하지만, 단기적 달러화 약세 전망 등으로 신흥국 통화 매입은 지속될 전망

■ **미국의 주가 상승 추세, 트럼프 감세법안이 반전의 원인 제공할 소지 - Financial Times**

(US stock rally faces some stiff tests)

■ **미국 상원, 재정 악화 초래할 예산안의 전면 재검토 요구할 필요 - 블룸버그**

(Senate must scrap Big Beautiful Budget and start over)

■ **미국 AI 조기 도입, 경제 성장 촉진을 유도하나 일자리 손실 초래할 우려 - Financial Times**

(Early adoption of AI will boost US growth)

■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 채권시장 변동성 축소를 위한 해결책 마련이 중요 - Financial Times**

(Japan faces big decisions on tackling bond market volat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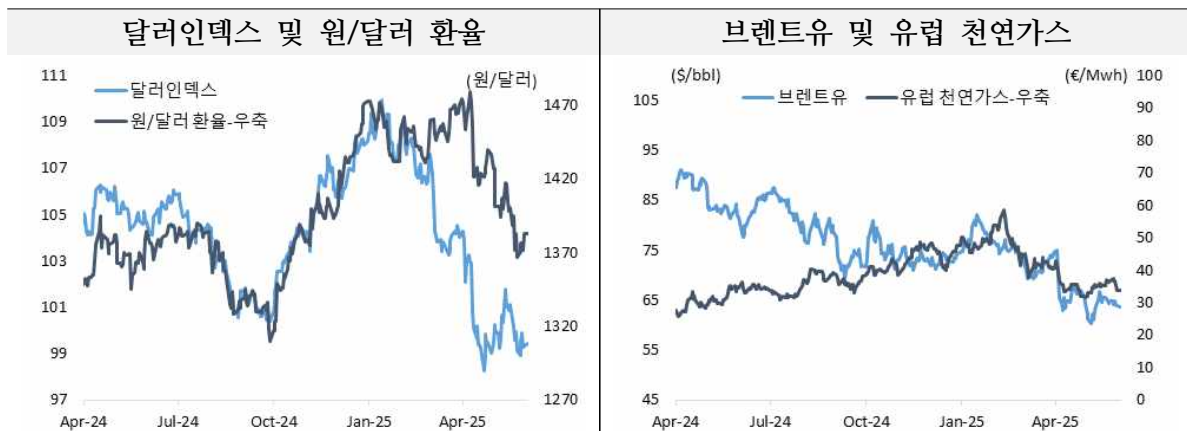
■ **아시아 통화의 강세, 완전한 脫달러화는 기대난. 잠재적 위험 대비가 요구 - 블룸버그**

(The Problem With Asia's 'Sell America' Mo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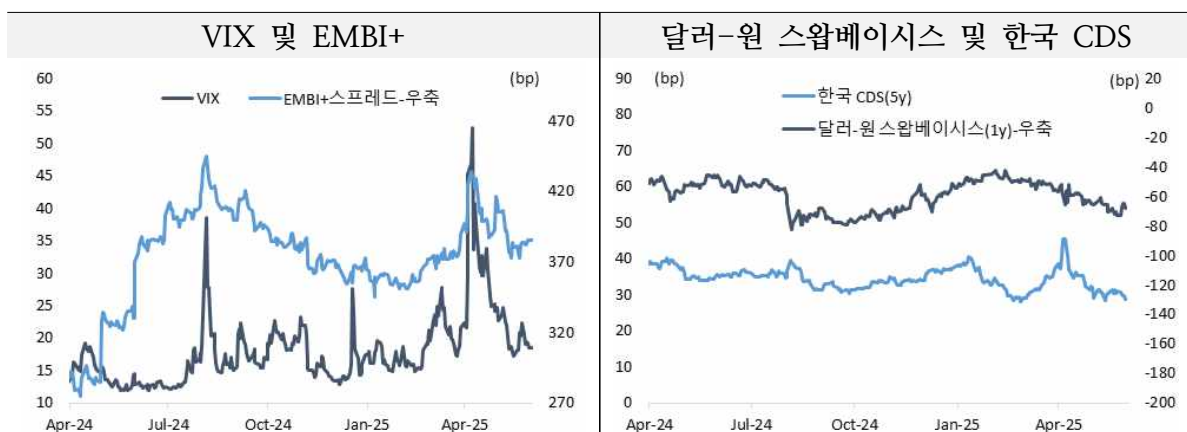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